

상반된 두 감정과 음악적 요소의 상관관계 연구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wo Opposite Emotions and Musical Elements

김 셋 별, 이 승 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Kim saet byeol, Lee se-ny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sang-myung Uni.,

요약

대중가요에서 경쾌한 감정과 슬픈 감정의 곡의 음악적 요소를 비교하였다. 분석한 음악적인 요소로는 장르, 조성, 곡의 형식, 화성진행, 빠르기가 있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 요소로는 빠르기와 조성변화, 화성 진행을 발견하였다.

I. 서론

음악이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인만큼, 청자는 특정한 분위기를 요구하는 음악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은 마케팅에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는 경쾌한 음악과 슬픈 음악이라는 두 상반된 감정분류 속에서 음악적 요소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 발견한 각각의 특징적인 요소는 작곡자의 감성을 나타내는 작곡활동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마케팅에 필요한 각각의 감성에 따른 곡의 특징적인 요소를 증명하고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음원 사이트 엠넷(mnet)에서 음악과 감성이라는 콘텐츠 중 경쾌한 테마에서 추천한 200곡과 감정적 테마에서 추천한 슬픈 감성의 200곡씩 총 400곡을 데이터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한 음악적인 요소로는 장르, 조성, 곡의 형식, 화성진행, 빠르기가 있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 요소로는 빠르기와 조성변화, 화성 진행을 발견하였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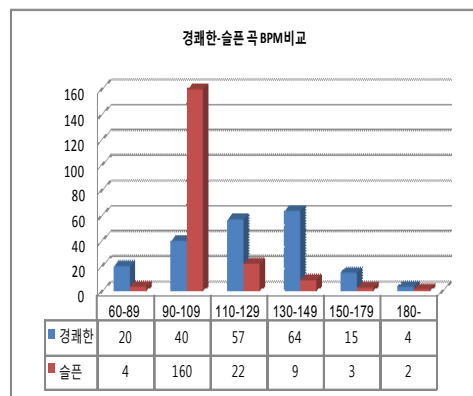
1. 음악적 요소와 정서 연구 사례

마이어(Meyer,1956)는 음악이 어떻게 감정을 야기 시키는 가를 이론화하였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반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방해되거나 억제되어지면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선행경험을 통해 다음에 오는 음악 패턴들의 유형에 관한 예상 기대감을 발달시킨다. 예상된 패턴들이 오지 않으면 즉, 지연되거나 전혀 오지 않는 정도에 따라 긴장 또는 감정이 야기되어진다.[1] 장조는 밝은·유쾌한·기쁜 등의 긍정적 의미를, 단조는 어두운·침울한·슬픈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의미를 표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Crowder, 1984 ; Hevner, 1935/1936 [2] 그러나 장조는 밝고 즐거운 감성

을, 단조는 반드시 우울하고 슬픈 감성을 유발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발렌타인(Valentine,1962)은 장조와 단조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감정 반응과는 달리 장조도 단조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소정(2001)은 템포와 장·단조에 변화를 주어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같은 음계라도 템포가 빠를 땐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정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같은 템포라도 장조의 경우에 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3] 슬로바다(1992)는 악곡을 들려주고 특정 종류의 정서를 야기 시키는 부분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눈물 나는 부분들로 표시된 악구는 선율에서의 아포지아투라(appoggiatura), 그리고 선율적 화성적 동형 진행(sequence)으로 새롭거나 예비 되지 않은 화성 부분이 많았다. 즉 순간적인 긴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가장 정서적인 동요를 일으켰다.[4]

2. 실제 사례 분석

1) 템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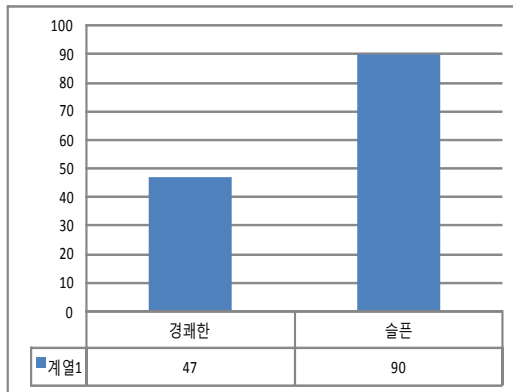
▶▶ 그림 1. 경쾌한 곡과 슬픈 곡의 템포 비교

경쾌한 곡에서는 BPM범위가 130-149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110-129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슬픈 곡에서는 느린 템포인 90-109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2) 조성 비교

경쾌한 곡은 장조가 125곡, 단조가 75곡이었고, 슬픈 곡은 장조가 153곡, 단조가 46곡 이었다. 전조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경쾌한 곡은 47곡은 슬픈 곡에서는 90곡이 전조가 진행되었다.

표 2. 경쾌한 곡과 슬픈 곡의 전조 비교



3) 화성 진행 비교

각 곡의 후렴구 부분의 화성 진행을 비교한 결과, 다이아토닉 음계에서 주로 나온 코드와 그에 추가되는 다이아토닉 코드가 섞인 패턴도 함께 분류했으며, 각 코드 도수의 균집을 로마 숫자로 표기하였다.

경쾌한 곡에서는 슬픈 곡에 비해 다이아토닉 코드를 쓴 경우가 많았으며, 슬픈 곡에서는 논 다이아 토닉 코드를 추가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경쾌한	다이아토닉	논 다이아토닉 추가	합계
① I, IV, V	12	2	14
② I, II, V, VI	5	3	8
③ I, IV, V, VI	16	4	20
④ I, II, IV, V, VI	3	5	8
⑤ I, II, III, IV, V, VI	6	15	21
기타	87	42	129
합계	129	71	200

슬픈 화성균집	다이아토닉	논 다이아토닉 추가	합계
① I, II, V, VI	1	9	10
② I, IV, V, VI	5	6	11
③ I, II, IV, V, VI	3	21	24
④ I, II, III, IV, V, VI	10	33	43
⑤ I, III, IV, V, VI, VII	5	5	10
⑥ I, II, III, IV, V, VI, VII	3	6	9
기타	35	58	93
합계	62	138	200

각각의 곡에 쓰인 논 다이아토닉 코드를 비교하였다.

경쾌한 곡 논 다이아 토닉 코드 형태					
Sec. Dom	subV7	MI	Aug	Dim	Blues
48곡	4	22곡	3곡	6	2곡

슬픈 곡 논 다이아토닉 코드 형태					
Sec. Dom	subV7	MI	Aug	Dim	Blues
108	12	67	27	19	0

경쾌한 곡과 슬픈 곡 모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그 다음은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가 쓰였다. 슬픈 곡에서는 aug코드와 dim코드가 경쾌한 곡 보다 3배에서 9배 정도 많이 쓰였다.

III. 결론

경쾌한 곡과 슬픈 곡을 비교했을 때, 템포 면에서는 이소정의 연구결과와 같이 같은 조성이라도 템포가 빠를 때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정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같은 템포라도 장조의 경우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장조와 단조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슬픈 곡에서는 단조보다 장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조와 단조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감성 반응과는 달리 장조도 단조가 내포하고 있는 감성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발렌 타인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준다. 경쾌한 곡과 슬픈 곡에서 각각 전조의 사례가 나타났는데, 슬픈 곡에서는 대부분이 장조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전조를 진행되었다. 이는 조성을 바꾸는 효과를 통해 슬픈 감성 표현을 극대화 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 진행을 비교했을 긴장과 이완을 주는 요소가 나타난다. 슬로바다의 연구에서 눈물이 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아포지아투라 (appoggiatura)는 비화성적인 음의 요소로 볼 수 있는데, 대중음악에서는 논 다이아토닉 코드로 나타난다. 각각 공통적으로 논 다이아 토닉 코드가 나타났으며, 빈도수를 살펴보면 슬픈 곡에서는 경쾌한 곡 보다 상대적으로 논 다이아토닉 코드가 많이 쓰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연구를 입증해준다. 이러한 각 감성의 음악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감성을 나타낼 때, 적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창의적인 작곡을 위해 각 요소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박유미, 음악심리학, pp. 311, 음악춘추사, 서울, 2004
 [2] Hevner, K. (1935). The Affective Character of the Major and Minor modes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7. Crowder, R. G. (1984). Perception of the Major/Minor Distinction: 1. Histor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Psychomusicology. 4. 3-12.
 [3] 장조와 단조를 중심으로 한 음악적 정서 반응에 관한 연구. 이소정, 2010
 [4] 박유미, 음악심리학, pp. 146, 음악춘추사, 서울, 2004.